

월요광장

‘내가 가진 것’이 곧 ‘나’인가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소식들은 하나 같이 ‘인간의 염치’에 대한 믿음을 뿌리 채 무너뜨리는 것들뿐이다. 특히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와 행동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지도층의 후안무치한 행태들이 끝을 모른다. 이들이 저지른 일들은 무엇보다 법과의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는 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행태들은 이미 개별적 한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현상이 되었다. 더 소유하는 것, 소유하고 또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소유냐, 존재냐”하는 에리히 프롬의 물음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무조건적으로 소유만을 선택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곧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확산 속에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곧 더

잘 사는 것이며, 더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을 신념으로 삼았던 것이 이러한 현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념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현대사회의 불행한 미신이며,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미망임이 분명하다. 소유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할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세상은 윤리와 법에 따른 질서가 필요하고, 윤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이 되는 도리를 배우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이며, 이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기에 ‘법’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끝없는 범죄행위가 잠오로 가관이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오직 개인의 더 많은 소유를 위한 도구로 여겼을 뿐인 듯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정도로 천박하고 비루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할 것인가. 요즘 세상에 소명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임무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과 자부심만 있더라도, 법을 지키는 권위와 명예를 둔 세는 재미와 그리 쉽게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들에게 법과 윤리는

더 많은 소유를 위한 허울 좋은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만 소유에서 소유로 생을 소비하는 삶을 미련 없이 내던진 사람도 드물지만 분명히 있다. 필자는 현재 러시아의 대작가 레오 톨스토이의 자취를 찾아서 여행 중이다. 톨스토이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인간의 ‘소유적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에 따른 행동으로 유명하다. 그는 대지주이자 백작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 보다 더 한 것을 입에 물고 세상에 나온 셈이다. 여기에 작가로서의 성공과 세계적 명성이 더해졌으니 그의 집안은 늘 당대의 유명 인사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결코 권력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달리 남치게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크나큰 부끄러움으로 여겼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서는 본래부터 가진 것을 수직으로 여긴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지경이다. 톨스토이는 어느 모로 보나 당시 러시아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평소 신념대로 전 재산과 모든 소유를 포기한 후에 말 그대로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다. 대작가가 실제 살았던 처境的 풍요로움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함으로써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역설한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 소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소유’를 위한 방식과 수단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얻은 소유가 범죄인 것은 분명한 일이며, 이러한 소유방식이 정당한 것이거나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취득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사람존재의 가치는 없고 소유의 정도가 척도가 되는 세상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경계도 없다. 그 대신 오직 들통이 나서는 안 되는 일들만이 남는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저 들기지만 않는 것이 ‘장땀’이라면, 이것이 곧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헬조선’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렇기에 소유에 관한 톨스토이의 생각이 더욱 더 특별한 울림을 갖는다. 그에 따르면, 누군가 더 많이 갖는 것은, 누군가는 그 만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니친 소유는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자신의 불필요하게 많은 소유를 떼땃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한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소유는 그리 많지 않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이러한 정신은 존재적 삶의 가치가 결여된 맹목적인 소유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법조칼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청렴도를 꿈꾸며



조 영 희
변호사

지난해 3월27일 공포돼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초 입법을 추진했던 법안이라, 법률이 공식명칭을 가지고 제정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이 익숙하게 통용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제1조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과 관련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헌법재판소에 4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27일 청구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들 역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인으로부터는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부적절해 보이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회의원들에게 교묘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며, 3만원 등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법 개정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비판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을 잘 적용하고 준수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접대문화를 불식시키는 것이 규범의 수범자인 우리들의 과제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 인식지수(CPI·청렴지수) 중 우리나라는 56점으로, 지난 2008년부터 7년째 OECD 34개국 중 27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해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상위 5개국 중 덴마크·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4개국을 포진시킨 북유럽 수준의 국가청렴도를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여야도 김영란법 한도 상향 촉구 한목소리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엇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한도를 올리고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 가운데 식사비와 선물을 각각 5만원과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경조사비는 동결시켰는데 ‘청렴’ 취지를 최대한 지키려는 의도로 앞뒀다.

결의안의 주된 목적은 당연히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에 있다.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현격하게 줄어 농수산업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보인다.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의 실효성 문제도 주장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지난 2003년에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 중 3

만 원 이내 식사비 허용을 준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나선 것은 현실 반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직격탄을 맞게 될 농어민 보호는 물론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생길 대중 다수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피해 최소화해 노력하자”고 말해 한층 더 힘이 실린다.

정부는 이미 법 부칙에 시행일이 확정돼 있어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가액 기준은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지키더라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까지 기준 상향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하게 받아들이야 한다. 사회 각계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정부도 민의를 최대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사무처 기형적 인사 쇄신해야

광주시의 하위직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시의회 사무처를 둘러싼 ‘파워’게임으로 시청 안팎이 시끄럽다고 한다. 시 의원들의 자기 사람 챙기기와 직원들의 출대기가 만연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업무량은 적고 근무평정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인사 때만 되면 의회에서 나가려는 직원은 없고 전입 직원만이 몰리는 기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시의회 사무처에는 공직 시작 이후 20년을 이통 한 번 없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징계를 받아도 좌천되지 않는 직원, 승진해도 타부서로 전출되지 않는 직원 등 정상적인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승진해서 사무처를 나간 뒤에도 1년만 지나면 되돌아오려는 ‘U턴족’도 상당수다.

이런 왜곡된 인사 행태에는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인맥 관리와 직

원들의 빗나간 보직·승진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시의원들로서는 정치적 자산 회 사무처를 둘러싼 ‘파워’게임으로 시청 안팎이 시끄럽다고 한다. 시 의원들의 자기 사람 챙기기와 직원들의 출대기가 만연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업무량은 적고 근무평정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인사 때만 되면 의회에서 나가려는 직원은 없고 전입 직원만이 몰리는 기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시의회 사무처에는 공직 시작 이후 20년을 이통 한 번 없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징계를 받아도 좌천되지 않는 직원, 승진해도 타부서로 전출되지 않는 직원 등 정상적인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승진해서 사무처를 나간 뒤에도 1년만 지나면 되돌아오려는 ‘U턴족’도 상당수다.

이런 왜곡된 인사 행태에는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인맥 관리와 직

無 等 鼓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비밀번호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다. 통신과 인터넷상거래·금융거래, 심지어 출입문까지 모든 곳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다.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중 휴대폰은 개인 정보와 행적이 오롯이 담겨 있는 탓에 가족에게도 비밀번호를 감추는 이들이 많다.

홍채(虹彩) 인식을 이용한 로그인이나 인증 서비스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자, 중장년층

이 조리개를 조절하는 조임근의 모양으로 인식하는 것이 홍채인식이다.

홍채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지개 모양, 또는 무지개 빛깔이다. 이는 영어 표현 아이리스(Iris)의 어원인 이리스, 즉 그리스신화의 무지개 여신 ‘이리스’에서 따온 것이다. 그리고 이리스는 붓꽃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리스의 각각의 뜻인 무지개(여신), 붓꽃, 홍채는 모두 색깔이 다양하다는 공통점에서 생긴 명칭들이다.

홍채의 어원인 이리스 여신은 제우스와 헤라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하거나

주로 헤라의 심부름을 했다. 등에 날개가 달린 그녀는 이슬방울로 만든 옷을 입고 무지개를 밟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으며, 간혹 옛날 그림을 보면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홍채 인식 스마트폰이 차별화될 기능을 좋아하는 젊은이에게 어필할 지, 숨길 것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더 팔릴 지 궁금하다.

/채희중 사회2부장 chae@

기 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타고난 천재였을까



김 광 태
능협안성교육원 교수

많은 이들이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성공인이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의 과정은 간과한 채, 그들의 재능은 타고났다고 부러워한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며,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한탄한다. 게다가 재능이 없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 변변한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결과적으로 재능이 없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성공인이 재능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이 속들여갈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했

을 때조차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노력한다.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나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여 결국은 뭔가를 이루어 낸다. 결과적으로 재능을 재차 확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 “굳은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은 천재는 이 세상에 있었던 적이 없다. 발명의 비결은 부단한 노력에 있다”는 아이작 뉴턴의 말은 참오로 타당하다.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세계 최고 천재 중의 천재로, 자능지수가 무려 205점에도 추정된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은 이렇다. “사용하지 않으면 철이 녹슬듯이, 활동하지 않으면 지성도 쇠퇴한다. 정해나 고뇌는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분투와 노력에 의해 타파된다. 나는 쇠붙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평생 면도날이 되고자 애썼다.” 천재성 이상으로 지독한 노력을 했던 만들어진 천재였다는 얘기다.

피카소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피카소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한 여인이 피리의 카페에 앉아 있는 피카

소를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피카소는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 주었다. 그리고는 50만 프랑(한화 약 8000만원)을 요구했다. 여자가 놀라서 항의한다. “아니,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는 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피카소가 대답했다. “천만에요. 나는 당신을 그리는 데 40년이 걸렸습니 다.” 타고난 천부적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연마한 노력의 산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자신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마켈란젤로 역시 “내가 지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내가 하나도 위대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다.

흔히 가장 또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재능이 특출났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재능을 키우기 위해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갖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기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양질전화(量質轉化)다. 양이 쌓이면

반드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양(量)이 결국 양(良)이 된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다. 하늘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으로 변하며, 이 구름이 결국 비가 되어 내린다.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빛과 물 그리고 거름이라는 ‘노력’의 과정이 하나씩 축적되어 ‘재능’이라는 꽃을 피우고 끝내 결실을 맺는다.

따라서 우리 법인(凡人)들도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쉽게 체념하지 말자.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배워 실천하는 것이다. 성공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 “태양이 도는 것처럼 서두르지 말고 착실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괴테의 주장과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남보다 더 오래 문제를 붙들고 있을 뿐이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되새기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